

[첨부2] 권태신 부회장 인사말씀(안)

(인사말) 전경련 부회장 권태신 입니다. 연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해 주신 추귀홍 대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해 주신 한국 기업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추귀홍 대사 업적) 대사님께서 2014년 2월 부임 이후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노고는 말로 다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 1월이 되면 추귀홍 대사님은 역대 최장수 주한 중국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사 재임기간 중 한중 경제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한중 경제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기초 플랫폼이 되는 역사적인 한중FTA가 발효되었습니다.

한중 교역규모, 상호 투자, 인적교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사님께서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한 2014년 양국 교역규모는 약 2,300억 달러에서 작년 약 2,700억 달러로 33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작년까지 양국 간에 약 3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일어났고, 약 3,000만명에 달하는 중국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3년	2014년 (A)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	B - A
한중 교역액 (억 달러)	2,289.2	2,353.7	2,273.7	2,114.1	2,399.8	2,686.2	332.5
대중국 수출	1,458.7	1,452.9	1,371.2	1,244.3	1,421.2	1,621.3	168.4
대중국 수입	830.5	900.8	902.5	869.8	978.6	1,064.9	164.1
	2013년 (A)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	누적투자(14-18년)
한중 상호투자 (억 달러)	51.7	49.5	63.1	60.8	45.2	84.0	302.6
한국 → 중국	46.9	37.6	43.3	40.3	37.1	56.6	214.9
중국 → 한국	4.8	11.9	19.8	20.5	8.1	27.4	87.7
	2013년 (A)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B)	누적관광객(14-18년)
중국인 한국 방문 (만명)	432.7	616.9	598.4	806.8	416.9	479.0	2,918.0

(17년 사드 사태) 2017년 초에 제가 전경련 상근부회장이 되고 나서 주한 외교단 중 가장 먼저 추귀홍 대사님을 찾아가 양국 경제현안*, 미래지향적 한중 경제관계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 당시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 유통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이례적 조사(* 롯데마트 100개 중 80개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고,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지급차량 5차 목록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제외' 되는

등 한국 기업의 對중국 비즈니스 리스크가 고조

(한중 경제관계 정상화) 다행히 지금, 대사님을 비롯한 한중 지도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중 경제 관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리커창 총리님의 시안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시찰,
지난 주 왕이 외교부장의 5년 6개월만의 방한,
이번 달 말 청두(成都)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베이징 한중정상회담 추진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모멘텀으로 삼아 2016년 사드 사태 이전으로 한중 경제관계 프레임이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2016년에 비해 한국 방문 중국인이 많이 줄었는데, 단체관광에 대한 제한조치가 조속히 풀리기를 한국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국 기업과 한국을 비롯한 외자기업간 동등 대우조치가 계속해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한중 경제관계 발전 거듭) 한중 경제관계는 지난 3년간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외교관계 속에서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양국 상호 투자 규모는 지난 해 84억 달러로 2016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444.1만명으로 점차 회복 중입니다.

(한중 경제관계 발전 제안 : 한중 FTA 개정 등) 한중 경제관계의 다음 단계로의 레벨 업을 위해 현재 한국 기준으로 활용률이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중FTA의 상품양허를 개정하고, 협상 중인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중 연간 교역규모 3,000억 달러 시대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중국 관심이슈) 현재 한국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중국에 대한 관심사항은 ①미중 무역협상 내용과 합의 시기, ②내년도 중국의 6% 경제성장 유지 여부, ③끝으로 사드 사태 후 중국 정부가 취한 조치의 정상화 시기 등입니다.

(간담회에 거는 기대) 오늘 미래지향적인 한중관계 발전방향에 대한 식견을 갖추신 추귀홍 대사님을 어렵게 모신 만큼 한국 기업인과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